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7월 미 소매 판매 호조 및 소비자 심리 약화...신중론 시사
- Reuters: 7월 미 수입 물가,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반등
- YahooFinance: 예상치 넘는 도매 가격...연준 9월 금리 인하 결정 어려워질까

[무역 전쟁]

- Bloomberg: 트럼프와 푸틴, 앵커리지 회담에서 서로 다른 목표 설정
- Bloomberg: 트럼프, "반도체 관세 300%로 인상 가능"
- CNBC: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비축 재고량 때문에 가려져

[주택]

- CNBC: AI, 아파트 시장 진출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여름 성수기, 항공사들도 예측 불가능하다
- CNBC: 미 소비자, 관세 불구 주얼리 구매 열풍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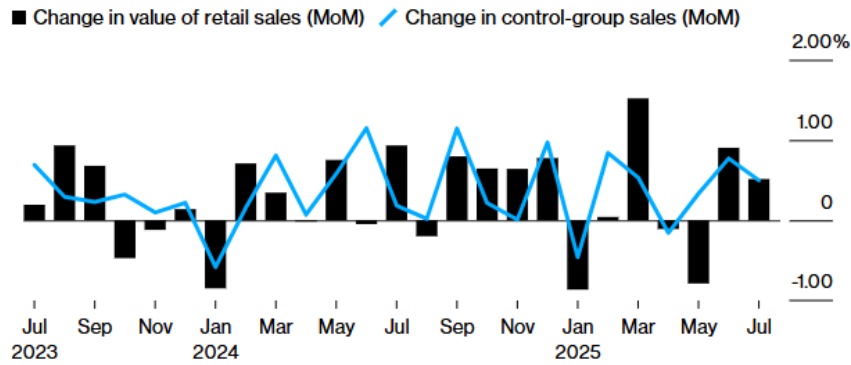
Bloomberg: Consumer Sentiment Signals Caution After Solid US Retail Sales

7월 미 소매 판매 호조 및 소비자 심리 약화...신중론 시사

- 7월 미국 소매 판매가 6월에 상향 조정된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노동 시장 침체 및 소비자 심리 약화 등의 이유로 향후 추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소매 구매액은 6월 0.9% 증가에서 상향 조정된 이후 0.5% 증가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3% 증가했다.
- 금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초 미국 소비자 심리가 하락했다.
-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그간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하반기에 지출이 호전될 것임을 나타냈다. 무역 정책이 명확해지고 주식 시장이 반등하며 구매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US Retail Sales Increase in Sign of Consumer Resilience

July advance followed upwardly revised increase in prior month



Source: Census Bureau

Note: Control group sales exclude food services, autos, building materials and gasoline

Bloomberg 기사

Reuters: US import prices rebound in July on higher consumer goods costs

7월 미 수입 물가,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반등

- 7월 소비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미국 수입 가격이 반등했다. 이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가 심화될 조짐을 나타낸다.
- 노동통계국은 수입물가가 6월 0.1% 하락한 이후 7월에 0.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출국이 관세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 목요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 데이터에서는, 식품 및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상품 가격이 급등했다. 이는 앞으로 몇 달간 인플레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Reuters 기사

YahooFinance: Why hotter-than-expected wholesale prices make the Fed's September rate cut decision harder

예상치 넘는 도매 가격...연준 9월 금리 인하 결정 어려워질까

- 도매 물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가될지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 Morgan Stanley 산하의 E-Trade의 투자 담당 전무이사 Chris Larkin은 “인플레이가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이나, 이 같은 상황이 9월 금리 인하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 7월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0.9%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현재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3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 생산자 물가지수(PPI)와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 지표인 ‘개인소비지출지수(PCE)’가 어떻게 될지 대략적인 추산이 가능한데, 이 보고서는 8월 2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 뱅크오브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Stephen Juneau는 “연준의 인플레이 측정 기준인 2%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9월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YahooFinance 기사

[무역 전쟁]**Bloomberg: Trump and Putin Have Different Goals for Anchorage Summit
트럼프와 푸틴, 앵커리지 회담에서 서로 다른 목표 설정**

- 트럼프와 푸틴이 앵커리지 회담을 매우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이번 회담의 핵심 목표로 보고 있으나, 푸틴은 전쟁에 대한 양보없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이미 승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 전쟁 발발 이후 G7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고립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이 같은 상황이 해소되고 있다. 또한, 이 회담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두 번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 반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의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을 키우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Says Semiconductor Tariffs Coming Soon, Could Reach 300%**트럼프, “반도체 관세 300%로 인상 가능”**

-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안에 반도체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관세 제도가 대폭 확대될 징후에 해당한다.
- 그는 “세율을 200%, 300%로 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의 제품에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백악관은 이 면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후속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다.

Bloomberg 기사

CNBC: Tariff-driven price hikes may be hidden by products stuck in ‘the middle mile’**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비축 재고량 때문에 가려져**

- 생산자 물가지수(PPI)와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전반적인 상품 가격선이 유지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수입 업체들이 화물 운송을 앞당기며 재고 확보에 나서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이다.
- 기업들은 연말에 진열되는 성수기 상품들이 올해 두세달가량 앞당겨져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다 불구하고 올해 성수기 물량은 작년보다 적다.

- 이에 따라 관세 인상에는 대비할 수 있었으나, 창고 공간이 부족해지며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약간 상승한 상태이다.

CNBC 기사

[주택]

CNBC: AI is moving into the apartment market, taking over work orders, lease renewals, showings and more
AI, 아파트 시장 진출

- 집주인이 렌트 확인 및 수리 요청으로 집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계약 갱신, 집 투어 등을 인공지능이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AI 기반 가상 에이전트를 통해 소비자의 집 투어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소비자의 질문에 답하고 임대 계약서를 검토하며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다세대 주택 개발업체는 조경, 배관, 난방 등 여러 업체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업체들은 송장을 사용하는데, AI 에이전트가 모든 송장을 수집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높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운영업체와 투자자들은 실험 단계에 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Summer travel isn't as easy as it used to be for airlines
여름 성수기, 항공사들도 예측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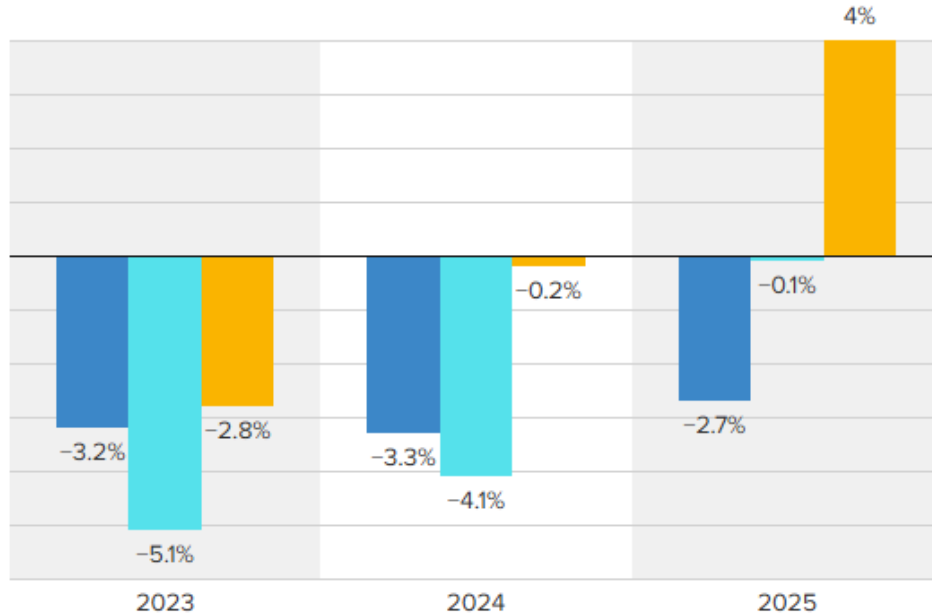
- 학교 방학 기간이 앞당겨지며 5, 6월 항공편 예약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여행객들은 폭염으로 인해 가을로 항공편 예약을 늦추고 있기도 하다.
- 항공사들은 7, 8월 휴가철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2분기와 3분기에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해왔는데, 여행 수요가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8월 항공편 운항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 미국 항공사들의 8월 국내선 수요는 7월 대비 6% 감소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수치이다.
- 항공사들은 관세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여행 수요 위축에 따라 6월 말과 7월에 항공권 가격을 대폭 인하한 바 있다.

U.S. airfare on the rise

Prices for air travel rose 4% between June and July; they dropped during that same period in 2023 and 2024.

Monthly percent change in summer airfare | 2023–2025

■ May ■ June ■ July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nsumer price index
Data as of Aug. 12, 2025



CNBC 기사

CNBC: U.S. shoppers fuel jewelry splurge despite tariff headwinds 미 소비자, 관세 불구 주얼리 구매 열풍

- 유럽과 중국의 소비자 심리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주얼리를 구매하고 있다.
- 주얼리 브랜드 PANDORA는 전 세계 지출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고 전했다.
- 반면, 중국의 매출은 해당 기간동안 15% 감소했고, 여러 주요 유럽 시장의 매출도 높은 한 자릿수만큼 감소했다.
- 미국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관세 우려로 인해 일부 업체는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CNBC 기사

[보고서]

비트코인, 고가 후 큰 폭 하락...美 생산자물가 영향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지 하루 만인 14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 48분(서부 오후 1시 48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8천185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3.68% 하락했다.

이는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4천100달러대와 비교하면 약 5% 떨어진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전날 사상 처음 12만4천 달러선을 돌파하며 지난달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